

시끌벅적 e-스타



박용수의 파스칼리



군 생활 해볼만 vs 대신 가 줄래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 군대는 남·여를 떠나서 언제나 끊임없는 이야기 소재가 된다. 남성들에게는 추억, 여성들에게는 호기심을 주는 군대 이야기.

그리고 ‘친구야 이 정도면 군대 갈만하지? 몸 건강히 잘 다녀와라!’는 인사말로 동영상은 끝이 난다. 동영상에 대한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Janis Ian... 추억속의 별 Stars



해가 바뀌면 습관처럼 우리들은 집 정리를 한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웬지 한 해를 잘 보낼 것 같다는 기대 심리 때문일까? 그것보다는 지나온 목은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환경에서 한 해를 시작하고픈 스스로의 다짐이지 않을까 싶다.

70년대 우리는 포크를 참 즐겨 들었다. 포크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강하다. 물론 지금은 우리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모습이라서 아쉬움을 자아낸다.

생각한다. 좁은 공간에 너무 복잡한 살림살이를 조금이나마 덜어 보고자 책장을 뒤집어 오래된 책들을 한쪽에 밀어 놓았으나 끝내 버리지 못했다는 사연이었다. 책갈피가 어떻게 변해 있는 책들을 만지작거리며 버려야지 버려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이것만은’이라 하는 아쉬움에 다시 몇 권을 밀어 놓고, 가끔 자신을 추억하려 두었던 책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고... 우리들의 추억이 바로 그 책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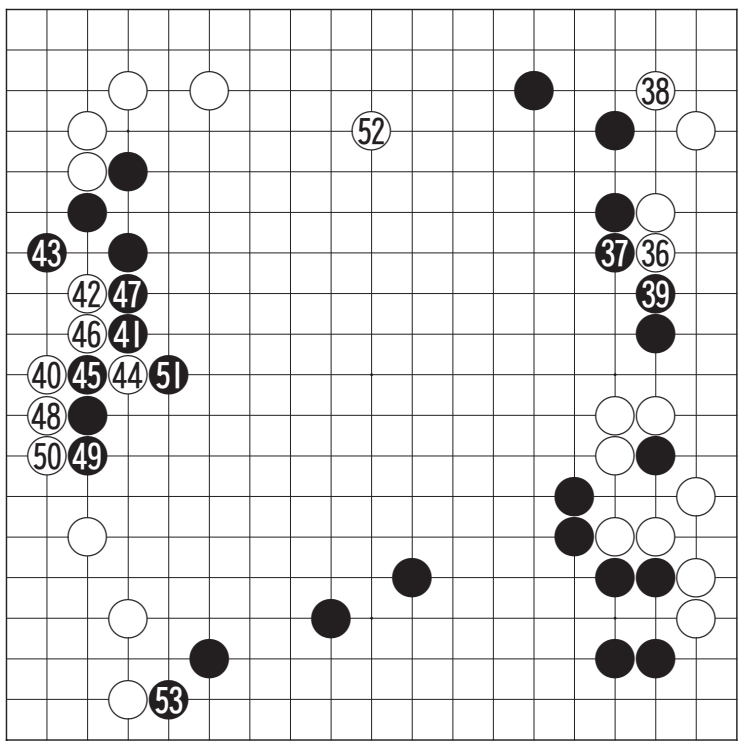
리빙 센스

전자레인지 200% 활용하기 ②

- ▶참깨 볶기 먼저 참깨를 물로 깨끗이 씻은 뒤 체로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씻은 깨를 넓은 접시에 놓고 중간에 두어 번 뒤져 거러 주면서 3, 4분간 가열하면 됩니다. ▶스티프타월 만들기 수건을 물에 적신 후 적당한 크기로 접어주세요. 넓은 그릇에 접은 수건을 담은 뒤 랍을 씌우지 않은 채 ‘강’에서 1분 30초 정도 가열해주면 스티프타월이 완성됩니다. ▶과일즙 만들기 레몬이나 오렌지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지 않고 통째로 ‘강’에서 1분 정도 가열해주면 쉽게 즙을 짜낼 수 있습니다. ▶과실주 발효 용기를 깨끗이 씻어 1분가량 미리 가열해 준 뒤 과실주를 용기에 넣고 랍을 씌워 5분가량 가열해주세요. 과실주가 빨리 발효됩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월 10일(음 12월 3일 己酉)

- 36년생 협력자가 큰 도움을 못준다. 48년생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노라. 60년생 인생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라. 72년생 친구 같은 부지각간의 시간을 가져라. 84년생 남 여 사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어라. 96년생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으나 밋을 내보라. 50년생 집에서는 말을 직장에서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라. 62년생 초고는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74년생 문서상 애로가 발생하니 꼼꼼하게 살피라. 86년생 눈물과 웃음이 있으나 나중에는 웃는다. 51년생 과도한 욕심이 없는 한 평안하다. 63년생 팔뚝에 친구와는 새로운 사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5년생 잘못 쫓겨간 단추가 속 꼭꼭한다. 40년생 힘의 안배를 고려하면 대고는 없으리라. 52년생 자신의 재주보다는 노력을 집중하면 실과는 없다. 64년생 마음을 단단히 가져라. 대고에 예상된다. 76년생 아무리 친한 친구의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88년생 속시 하는 기대는 버리고 뜻을 분명하게 하라. 53년생 아들과 딸의 고민을 알아봐라. 65년생 부부의 정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생긴다. 77년생 혼자서 바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42년생 지루한 시간은 지나고 기쁨의 시간이 온다. 54년생 미운 사람이 보이니 나에게 도움을 준다. 66년생 이성이 다가오니 좋은 인연이 아니다. 78년생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니 평안하게 보내라. 43년생 분수를 지키면 흉한 일은 피하리라. 55년생 신중함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67년생 인생의 방향에 큰 변화의 기회가 생긴다. 79년생 여유 있게 보내면 기회는 속히 온다. 44년생 순리대로 행동하면 결과가 좋으리라. 56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했던 일들이 잘 풀려간다. 68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험글라니 중심을 찾아라. 80년생 들고 싶은 일이 생기니 여러번 일을 아니다. 45년생 쌓아온 명성이 자기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57년생 시비 구설수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발생한다. 69년생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있으니 조심하라. 81년생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정해도 좋다. 46년생 흉한 일과 길한 일이 있지만 길한 편이다. 58년생 마무리를 잘하라. 10%로 부족이 90%를 갖아간다. 70년생 자식의 친구들도 살펴봐야 좋을 듯 하다. 82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화는 없다. 47년생 속과 겉이 다른 일이 생기거나 차분하게 살려야 좋으리라. 59년생 작은 병도 잘 살펴봐라. 71년생 해묵은 감정을 버려 내 새로운 정을 새기리라. 83년생 직장에서 최신사 조심하면 인기가 오른다. 96년생 운의 숫자: 13, 41



제5회 KBC사자배 때 이른 침입 3보(36~53) 白 김근홍 4단 (전자공고 1) 黑 강지수 4단 (문성중 1) 우변에서 서로의 힘을 가늠하기 위한 가벼운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근홍군이 백 38까지 실리를 차지하자 강지수군은 39까지 외곽을 두텁게 싸바르고 있다.

바둑소식 열쌍 이슬아 쾌조의 2연승 한국 여자바둑의 '열쌍' 이슬아 초단이 제6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에서 쾌조의 2연승을 달성했다. 이슬아는 9일 중국 항저우에서 계속된 이 대회에서 중국의 왕관 초단을 상대로 207수 끝에 흑불계승을 거뒀다. 전날 일본의 우메자와 유카리 5단을 꺾은 뒤 따낸 2연승이었다.

굿모닝 잉글리쉬 <1073> 오하오우 니혼고 <1073> 니하오 쑹구위 <50> 한자 이야기 <690>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언급하고 싶지 않네 A: What's wrong? B: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 Listen, I realize that you're nervous about tomorrow. Just do what you normally do and you'll be fine. B: You're probably right, Thanks. A: 뭐가 걱정이냐? B: 언급하고 싶지 않네. A: 이봐, 내일 일 때문에 긴장되어 있지? 나는 알고 있지. 그저 평상시에 자네가 하던 식으로 하거나, 그러면 잘 될 거야. B: 자네 말이 맞는 것 같구먼. 고맙네. \* 자네가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나는 알지. = I realize how much you want to go. \* 자네 어머니께서 내일 오신다며? = I realize that your mother is coming tomorrow.

あら どうしましょう。 어머, 어찌지? A: お母さん、田舎のおばあちゃんから電話だよ。 B: あら どうしましょう。今、食事の支度(したく)をしていて、手が放(はな)せないのよ。 お父(とう)さんに、出(で)てもらって。 A: お父(とう)さんも、会社の仕事の残(のこ)り、持(も)ちかえりで、手がふさがってるわよ。 B: じゃあ、申(もう)しわけないけど、あとで掛(か)け直(なお)すって言ってくれる。 A: 알마, 시골 할머니한테서 전화 왔어. B: 어머, 어찌지?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손을 뺄 수가 없어. 아빠한테 받아 달라고 해. A: 아빠도 회사의 남은 일을 가지고 오셔서 일손이 팍 차 있어. B: 그럼, 죄송하지만, 나중에 다시 건다고 말해 줄래? 支度(したく): 준비, 채비 出(で)てもらう: 나오게하다, 전화를 받게하다 残(のこ)り: 나머지

元旦你打算去哪儿? 설날에 넌 어디 갈 계획이야? A: 元旦你打算去哪儿? yuán dàn nǐ dǎ suàn qù nǎr? 元旦엔 너 다스완 어디 갈? B: 元旦我打算去奶奶家, 你呢? yuán dàn wǒ dǎ suàn qù nǎi nai jiā. nǐ ne? 元旦엔 난 할머니 집에 갈 계획이야. A: 元旦我打算去中国玩儿。 yuán dàn wǒ dǎ suàn qù zhōngguó wánr. 元旦엔 난 중국에 놀러 갈 계획이야. B: 哇! 好羡慕。 wā! hǎo xiànmù. 와! 미운 지엔부. A: 설날엔 넌 어디 갈 계획이야? B: 설날엔 난 할머니집에 갈 계획인데, 넌? A: 설날엔 난 중국에 놀러 갈 계획이야. B: 와! 정말 부럽다. 元旦 [yuán dàn] 설 打算 [dǎ suàn] 계획하다 羡慕 [xiànmù] 부러워하다

액년(厄年) 재앙 액, 해년 액년(厄年)은 운수가 모질고 사나운 해를 의미한다. 우리는 흔히 운수가 사나운 해를 '삼재(三災)가 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본에서는 '액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액년은 본래 중국에서 전래된 말이다. 올해 남자의 경우는 우리처럼 세는 나이로 25세(취미)·42세(양미)·61세(취미)에 해당하고, 여자의 경우는 19세(말미)·33세(음미)·37세(취미)에 해당한다. 올해 무자년(戊子年)에 액년을 맞이한 사람 중 남자 25세와 61세, 여자 37세의 경우는 특히 생년(生年)의 액년(厄難)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작년을 전액(前厄), 올해를 본액(本厄), 내년을 후액(後厄)이라 하여 전후 3년간을 경계(忌)한다. 특히 남성은 42살, 여성은 33살을 대액(大厄)이라고 부르면서 각별히 조심할 것을 요구한다. 이유는 일본어로 '42'의 발음이 '사나'이므로, '죽음'이라는 '사나(死)'와 같기 때문이고, '33'의 발음이 '산산'이므로, '심하게 · 호되게(당하다)'의 '산산(散?)'과 같기 때문이다. 액년에는 보통 사찰이나 신사(神社)에서 '액막이' 행사를 한다. 일본의 사찰과 신사에는 1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신년의 행운(幸運)을 기구(祈)하는 참배행렬이 끊이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액년의 액막이 의식을 유독하는 세련된 상술(商術)도 넘쳐흐름을 엿볼 수 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